

# 북스

Books

## 아름다운 나체 부끄러운 나체 그 애매한 경제

수치심의 역사 장 클로드 볼로뉴 지음

1965년 프랑스 니스의 한 산책로에서 가슴이 살짝 드러나는 '모노키니'(monokini·원피스와 비키니 수영복의 중간형태)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녔던 여성은 옷차림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15세기 카스티야의 여왕 이사벨 1세가 의사에게 '맨살'을 보일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해 목숨을 잃었던 것에 비하면 양호하다. 하지만 2008년 지금 이 순간 독일의 나체 해변에서 가슴을 드러낸 채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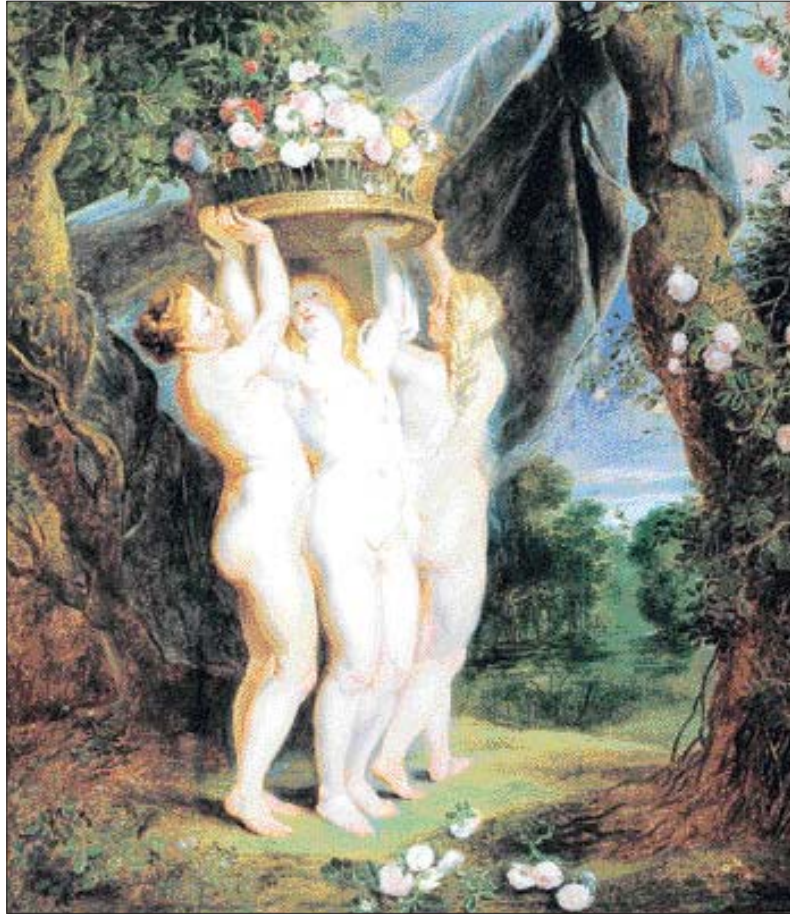
사람이 느끼는 '부끄러움'의 감정을 말하는 수치심은 시대나 장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 관점에 따라서 어떤 약점이나 결점을 감추기 위한 인간이 느끼는 곤혹감으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수치심의 역사'는 나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양사(프랑스 중심)의 틀에서 조명한 책이다.

중세 역사 연구가이자 프랑스 문인 협회 사무국장인 장 클로드 볼로뉴가 서양 문화사와 사회사, 예술작품과 일상생활 등 다양한 각도에서 나체와 얽힌 수많은 일화를 소개하며 수치심과의 관계를 살폈다.

1부에서는 육조, 옷, 의학, 침대, 화장실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나체와 수치심의 관계를 파악했다. 18세기까지 서양에서는 상류층 여성들이 목욕 중에 손님을 맞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알몸을 보이면 뒷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겨기도 해 수치심이 계급적인 성격을 담기도 했다. 또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까지 구멍이 여러 개 뚫린 '번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수다 떠는 게 유행이었다고 한다.

2부에서는 조형예술과 연극, 영화, 문학 등 예술 작품 속에 반영된 나체에 대한 인식을 살폈다. 17세기에는 조형작품의 신체 노출부위에 대한 덧칠로 논란을 빚



19세기까지 나체에 대한 일상생활의 규범은 예술 작품 이외엔 매우 엄격했다. 그림은 아름다운 누드화로 꼽히는 루벤스의 '삼미신'.

었던 반면 20세기 들어서서는 영화, 연극, 광고 등 외설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세기의 세례화에서 아기 예수는 교회의 외설 관점에 따라 망토 같은 것을 둘러야 했다며 저자는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수치심의 문제로 해석했다. 또 라퐁텐의 '우화집', 몽테스키외의 '페르시아인의 편지', 몽테뉴의 '수상록' 등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가톨릭 금서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1745년 바티칸이 발표한 금서목록엔 심지어 '성경'이 포함됐던 사례도 제시했다.

저자는 "수치심은 나체나 육체의 어느 부분에 대한 반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무엇보다 의식의 문제"라며 "수치심은 스스로 나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가 소개한 수많은 일화를 읽다 보면 결국 '수치심은 문명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책은 나체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치심의 상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당대의 그림에 얽힌 이야기, 노래 가사 등 저자가 제시하는 자료도 풍부하다. <에디터·1만9천800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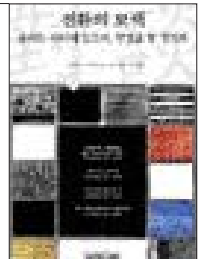
## 성장·경쟁 만능의 시대, 우리의 설 자리는?

전환의 모색 최장집·김우창·장희의·도정일 지음

"'민주화 단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정당이 제대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 80년대식 민주화 운동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진보진영의 대표적 지식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20년간 한국 사회는 보수 독점의 정치체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규정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화가 진전된 것과는 달리 경제적 민주화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주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빈부격차, 양극화, 고용의 불안정, 사회계층 등 이른바 '민주화의 역설'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모색할 때 서서히 한국사회의 체제적 경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과학기술과 시장가치 맵신, 인간성 무시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자본주의 시대



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또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장집·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장희의 서울대 명예교수,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등 4명의 석학은 '전환의 모색'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좌표를 모색했다. 임지현 한양대 교수 등 계간 '비평' 편집위원 4명이 각각의 석학들과 대담하는 형식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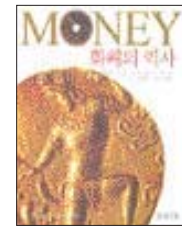
도정일 교수는 "삶의 전면적 시장화가 한국사회가 민주화를 성취하는 데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진단하고, "대중의 문화적 능력을 복원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처방했다.

김우창 교수는 "풍요롭고 성숙하며 자유로운 개인들이 경영 합리화와 효율 극대화에 맞서 민주적 공동체(심미적 국가)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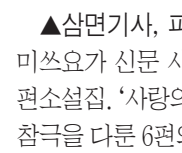
장희의 교수는 '생태계 파괴'를 막으려면 에너지와 자원을 최소로 소모하면서 최고의 문화적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 획득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주문이다.

성장, 효율, 경쟁, 자원을 금과옥조로 삼는 오늘의 정치적 현실에서 전환을 위한 새로운 모색의 출발점을 제공해 줄 화두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의 나무·1만5천원> /김주경 jnews@kwangju.co.kr

### 새책



▲화폐의 역사=캐서린 이글턴 등 대영박물관에서 화폐와 동전을 전담하는 큐레이터들이 인류 최초의 원시적인 화폐에서부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달러에 이르기까지 세계 화폐의 역사를 소개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등장했던 화폐와 관련된 그림, 벽화, 어음 등 각종 도판도 함께 실렸다. <말글빛남·2만9천원>



▲삼면기사, 피로 얼룩진=일본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인 가쿠타 미쓰요가 신문 사회면에 실린 6개의 사건 기사를 모티브로 펴낸 단편소설집. '사랑의 보금자리' '밤 불꽃놀이' 등 지독한 사랑과 일상의 참극을 다룬 6편의 소설이 실렸다. <상상공방·1만500원>



▲행복하소서-최일도의 행복편지=다일공동체를 운영하며 '밥과 운동'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가 지난 1년 동안 쓴 편지를 엮었다. 365개의 편지와 70여 장의 사진을 통해 일상에 대한 단상과 감사하는 마음 등 소소한 행복들을 이야기했다. <위즈덤하우스·1만2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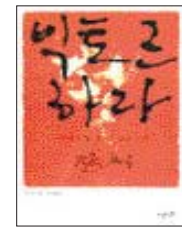
▲그림이 그림다-웃음과 풍자로 엮은 현대미술 이야기=미국에서 극작가, 시인, 라디오방송 진행자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소현이 현대미술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소통의 문제를 우화 형식으로 소개했다. 현대미술작품을 풍자한 12편의 단편이 실렸다. <열화당·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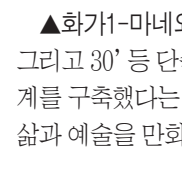
▲문화도시-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강원대 영상문화학과 유승호 교수가 세계의 주요 문화도시 사례들을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했다. 120여개의 주요 건물·거리 사진을 함께 수록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문화도시를 추진했던 리더십과 파트너십도 소개했다. <일신사·2만원>



▲0.1그램의 희망='한국의 스티븐호킹'으로 불리는 지질학자 서울대 이상목 교수가 전신마비 장애를 딛고 일어난 휴먼스토리. 2006년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벌어졌던 사고부터 시작해 그의 어린시절은 물론 지질학에 대한 연구동향도 함께 실렸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1천원>



▲빅토르 하라=아름다운 삶, 끝나지 않은 노래=1960~1970년대 노래를 통해 사회변혁을 꿈꾸던 노래운동 '뉴에바 칸시온'을 이끌었던 칠레의 민중가수 빅토르 하라(1932~1973)의 삶을 조명 한 책. 빅토르의 아내인 조안 하라가 남편의 삶을 통해 칠레의 현대사를 살폈다.<삼천리·1만8천원>



▲화가기-마네와 모네=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의 원작인 '10, 20, 그리고 30' 등 단순한 그림체와 현실적인 스토리로 독자적인 만화세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강모림 작가의 신작. 마네와 모네의 삶과 예술을 만화의 장점을 살려 한 편의 드라마처럼 구성했다. <돌풍·1만6천800원>



▲링컨 치를 타는 변호사=미국 인기 소설가인 마이클 코벌리의 첫 법정 스릴러 소설. 속물 변호사 마키 할러가 거물 부동산업자인 악질 의뢰인의 변호를 맡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저자는 디테일한 묘사를 위해 수심차레에 걸쳐 형사 재판을 관망했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천원>

### "어떤 책이 팔리나" 출판·유통 노하우

대형서점에 있는 24만 종의 책 중에 10만 종이 1년이 지나도 단 한 권도 팔리지 않는다.

종이값은 지난해보다 15%나 올랐고 서점들도 반품 주기를 3~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줄이는 등 출판 시장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출판평론가인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이 연구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위기의 책 길을 찾다'를 펴냈다.

저자는 출판과 유통에 관한 노하우를 9개 주제로 요약해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출판 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어떤 책을 펴내고, 어떤 글을 써야 할 것인가?' 등 출판인들이 당면한 고민거리들에 대한 해법들이 소개됐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9천원>

/이은미기자 emlee@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이천 차, 진안 차, 정읍 차, 무안 차, 순창 차, 고령 차, 영주 차, 울진 차, 울릉 차, 양양 차, 평강 차, 함양 차, 문성 차, 봉화 차, 영덕 차, 울진 차, 울릉 차, 양양 차, 평강 차, 함양 차, 문성 차, 봉화 차, 영덕 차